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의병장 문숙공의 순절은 임란 발생 두 달 후였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대중회 문헌편찬위원장

임진왜란(壬辰倭亂), 지금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울분이 치밀어 오른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상륙한 왜적은 7일 만에 경주성(慶州城)을 무혈 점령하고 왜적이 가장 무섭게 여겼던 천혜의 자연 요새 문경제재를 침추고 노래하면서 넘은 그해 5월 2일 주인이 달아난 한양성에 입성했다.

지금의 예천, 용궁현에서 임란 발생 두 달 만에 창의했던 진사(進士) 권응정(權應定) 의병장은 상주에서 주력부대를 이끌고 개령(지금의 김천 아포면)에서 용궁현으로 진입한 왜장 모리휘원을 막기 위해 우복룡 용궁현감과 관관 조봉이 이웃 예안 현감 신지제가 보낸 병사와 군마 300필로 좌우로 나누어 첫 전투를 벌였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배인길을 비롯 지보 대주리에서 참가하신 진사 권응정(權應定), 한철경 의병장이 순절하셨다.

임진년 6월 15일, 임란 발생 2달 이틀만의 순절이셨다.

최근 진사(進士) 휘(諱) 응정(應定) 공(公)의 순절 날짜를 후손(영규英規, 36세 공학박사)이 지난 6월 예천군사 및 용궁지에서 “임란 발생 2달 만인 6월 15일 용궁에서 맞붙은 첫 전투”에서 순절하신 사실을 찾아내 후손들에게 알렸다.

진사(進士) 휘(諱) 응정(應定, 22세) 공(公)은 17세 판사공(判事公 휘諱 조輅, 고려 문과高麗文科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 5대조, 18세 경력공(經歷公 휘諱 관寬, 행조산대부行朝散大夫)이 고조부, 19세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 증 이조판서吏曹判書, 단종의 이모부)이 증조부(曾祖父), 20세 별제공(別提公, 휘諱 철명哲命)이 조부, 그리고 21세 별제공의 넷째 아드님이신 직장공(直長公 휘諱 수경)이 부친이시다.

문숙공(文肅公, 휘諱 응정應定)은 부친이셨던 직장공(直長公, 휘諱 수경)과 평해황씨(平海黃氏, 부父 진사進士)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나 성장했다. 자(字)는 문숙(文肅), 호(號)가 호암(湖巖)이다. 일찍부터 학재가 동접(同接)을 뛰어넘었으며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열 살 무렵에 깨우쳤다. 약관(弱冠)에 진사시(進士試)에 입격(入格), 대과(大科)를 준비하다 임진왜란을 맞았다.

문숙공(文肅公)은 왜적이 부산에 상륙, 경주성을 무혈점령하고 19일 만에 한양성에



임란 의병장 문숙공 묘소



안동 구호리산 가운데 호암정이 있다.

입성한 소식을 듣고 바로 창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항병들의 전투 체비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궁 진격을 막은 전투가 첫 전투이자 마지막 전투가 됐다.

항병들이 들고나온 무기는 칼이나 활보다 철권 도끼 낫 죽창 쇠톱으로 무장했으며 대각 소각을 요란스럽게 불고 금탁 징을 치는 군사도 있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적군에게 전면전은 어려웠으나 지형 지세를 이용한 기습작전으로 전과를 올려 사기는 어느 부대보다도 높았다고 한다. 문숙공이 순절한 이후에도 밀고 밀리는 용궁현 전투는 치열했다.

임진년 7월 5일과 9일 경상좌병사 박진이 영천 의병장 정대임과 신령 출신 의병장 권응수 장군에게 군사를 집결시켜 용궁, 예천에서 철수를 서두르는 왜적을 칠 것을 청했다.

현감 이유와 진사 이광옥 권옥은 조유사 김성일의 격문을 보고 항병을 모아 예천 혹은 산성에서 왜병을 격퇴했다. 7월 27일엔 왜적이 안동 의성 예천 군위로 나누어 침범, 보문사 나한전과 산신각 조간정 용궁향교 약포서사 덕만정이 큰 피해를 입는 등 밀고 밀리는 전투로 항병들의 희생이 컸다.

문숙공(文肅公)의 묘소는 지금의 안동시 풍천면 구호 산록에 배위(配位)이신 의인(宜人, 정종육품正從六品 문무관의 부인에게 내린 품계) 안동김씨(安東金氏, 부父 휘諱 재식在濕)와 합편으로 써졌다. 슬하에는

아들(휘諱 철澈)을 뒀다.

또 기록마다 문숙공(文肅公)은 증조부 죽림공(竹林公)이 사셨던 지보면 대주리가 생장지로 나온다. 문숙공(文肅公)은 임란 발생하자 안동김씨에게 “충(忠)과 효(孝)는 한가 지인데 나는 나라를 지키고 당신은 가문(家門)을 보존(保存)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출전하셨다. 배위(配位) 안동김씨는 3살 난 아들(휘諱 철澈)을 데리고 산세가 좋고 왜적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안동부 구호에 들어와 세거지를 마련하셨다.

2022년 후손들이 단소를 조성하고 문숙공의 아들(휘諱 철澈)과 손자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 휘諱 성진成進) 증손자 통덕랑 통훈대부증군자감정(通德郎通訓大夫贈軍資監正, 휘諱 윤민允敏)을 비롯한 8대 선조와 배위를 봉안하고 매년 11월 추향을 봉행한다.

최근 문숙공(文肅公)의 후손들이 신일권(申一權) 박사 국역 “호암정유계시집湖巖亭儒樛詩集”을 출간했다. 이 시집은 문숙공(文肅公)의 총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호암정(湖巖亭)과 창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림(儒林)들이 지은 시(詩) 115수를 모은 시집이다. 문숙공(文肅公)의 학문, 총절 정신이 세월 속에 묻힐 것을 염려한 후손들이 정자를 세우고 순절 정신을 담은 시집(詩集)을 내고 호암정 기문과 상량문 현판을 정자에 담았다.

한다. 아래 대인 9대조는 9형제인데 맏아들과 둘째는 무고로 되어 있는데 어릴 때 죽었는지 성년이 되어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족보에 보면 이름만 전할 뿐이다. 여기서는 일곱째 아들이 부모를 봉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는 아마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라가 혼란 기인데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민심과 나라경제가 나빠질대로 나빠졌을 때인 만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전쟁터나 부역으로 많이 동원되었거나 지금 생각해 보니 무슨 사연이 있었지 앓았나 싶기도 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해서 둘째 막내 아니면 일곱째가 부모를 모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8대 조부터는 맏아들이 부모를 모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세대는 어떤가 일제의 암흑기를 지나 8.15광복 후 6.25를 거치면서 산업경제사회를 거치면서 직장따라 살다보니 자연히 핵가족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8남매인데 3남 5녀 중 제일 끝 막내인 것이다. 제일 위에 형님 두 분이고 누님이 5명인데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양친 부모를 모시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려니 시력이 나쁘다고 받아 주는 회사도 없고 군에 갈려고 신체검사에서도 시력 나쁘다고 못 가게 되고 군대 가고 싶지만 시력이 나빠 안된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장애인 군대 안간 사람은 취직은 물론 사회 활동도 제한적이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야 농사일 뿐인데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 주위의 시선도 안 좋고 농토도 얼마 안 되고 당시는 소가 오늘

맑고 높은 하늘, 단풍든 나무들, 산들바람.... 이렇게 풍요로운 가을이 되면 누구나 바쁜 일상 생활이나 일 속에서 빠져나와 대자연의 품안에서 걸어다니고 싶어진다.

특히 매일같이 단조로운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 항상 같은 근육이나 같은 신경 회로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휴식이나 수면을 취해서는 완전한 피로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에서 정신적 휴양이라든지 생활의 전환, 이른바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해지고 그중에서도 하이킹의 효용은 크게 기대된다. 역시 심한 노동으로 과로했다거나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행을 떠나거나 하이킹을 하면 피로를 씻을 수 있다. 또한 사무실 혹은 공장 일로 피로한 사람들이나 가정에서 하루종일 분주한 가정주부에게 있어서 화창한 가을날, 하루 들뜬에 나가 마음껏 즐겁게 걸어다니는 것은 역시 좋은 레크리에이션이 된다.

한방에 ‘天之 六氣’와 ‘人之 七情’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연 이치의 섭리를 잘 받으면 슬프고 두렵고 마음 상하는 모든 요소를 잘 해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하이킹이라 하면 첫째, 걷는 거리가 문제시된다. 골프도 걷기를 많이 하는 운동인데 18홀이니, 27홀이니 해서 약 6km 또는 10km 라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추거나 연령에 맞추어서 적절히 운동을 즐길 수 있으므로 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또 건강(健脚)의 하이킹이라면 약 30km는 걸을 수 있다고 하겠는데 보통 3분의 1 정도라도 적당한 하이킹이라 하겠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항상 걷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 고들 한다. 가을 절기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걷기 좋은 계절로 한방의 ‘고암구심제(古庵救心劑)’를 활용하며 걷는 힘을 기른다면 심장 또한 강해지게 된다. 심신 질환, 고혈압, 신경 쇠약 등에는 빼놓을 수 없는 운동이라 하겠다.

권혁성(權赫性, 좌윤공파 36세) 후손 경상북도 향교재단 이사장 취임



권혁성 경북도 향교재단 이사장

2021년부터 6년간 포항 연일향교(延日鄕校) 전교로 헌신했던 권혁성(權赫性, 1946) 후손이 지난 9월 9일 경상북도 향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4년간 경상북도 내 38개 향교를 이끄는 수장이 됐다.

신임 권혁성 이사장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좌윤

운동, 체질에 맞게 꾸준히...30년을 더 젊게

사람은 몸을 움직여 활동을 하여야만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함은 누구나 느끼는 바이다.

굳이 생물학적 법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육관절이나 심장을 비롯하여 뇌를 사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사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영양을 섭취한다 해도 몸의 기능은 점점 퇴화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생활 양식이 현대화 되어감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신체 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게 됨으로써 체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건강을 저해하는 등 실로 운동 부족은 현대인의 건강에 직접 간접적인 큰 원인으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본래 20세를 전후하여 발육 성장이 최고도에 이르며 이로부터는 서서히 감퇴되어 가는데, 오늘날 청소년의 체력 상태는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입시 경쟁에 치우친 공부로 인하여 운동 부족이 되기 쉬운 고등 학생의 체력이 가장 염려스럽다.

인체의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한방에 ‘불능신장(不能伸臟)이든 골고기육(骨枯肌肉)’이라는 말이 있는데, 5장 기능의 운동이 부족하면 뼈마디가 약해지고 살이 마른다는 뜻이다.

운동 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에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음식물만 섭취하면서 전혀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와상 안정(臥床安靜)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건강 저해는 물론 체질 변형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실험에서 보더라도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운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노년기에 체력 보강을 하면서 체질에 맞는 지속적인 운동을 실행한다면 30년을 더 젊게 살 수가 있다고 한다.

운동이 역시 노화 방지에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

공파(佐尹公派) 포항 경주 임향조이신 사정공(司正公, 휘諱 수해壽海) 묘소와 재실 및 포항 오천서원(烏川書院) 중창을 맡았는가 하면 1991년부터는 임란의병장이신 송헌공(松軒公, 휘諱 여정汝精) 문중 위원장을 맡는 등 중조정신이 유독 강했으며 이 시대 유학자(儒學者)이시다.

권혁성 경상북도 향교 재단이사장은 앞으로 4년간 “도내 38개 향교를 방문, 사라져가는 유림 정신을 일깨우고 유학을 후세들에게 전하는 데 전념하는 한편으로는 날로 퇴락해 가는 도내 향교 보수 복원사업에도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독자투고

임향조와 조상의 내력

권순채(향토사연구)

향토사를 연구하다 보면 지명조사를 하게 되고 방언, 전설, 문화유적을 조사 연구하다 보면 씨족사와 보화를 하게 마련이다.

지명을 조사하려 가면 성씨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먼저 어느 성씨가 먼저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와 거기에 따른 지명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면서 농사짓던 곳이 경주시 내남면 망성1리(동굴, 또는 두동)인데 현재도 논,밭이 고향인 동굴에 있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 지금은 농사만 짓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직장 다니면서 농사를 짓곤 하였다. 주위에서는 70이 넘었는데도 젊은이 못지않게 일한다고 대단하다고 놀라곤하였다. 그것도 심오리나 떨어진 마을에서 말이다. 내가 이사 온 지가 26년이 되었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아직까지 동굴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경주지방에서는 동굴하면 안동 권씨라고 말한다. 그러면 동굴의 안동 권씨는 언제 임향하게 되었으며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은 어떤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18대조께서 단종 사화에 연루되어 당시 오지 중의 오지인 포항으로 오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아랫대는 4형제인데 한집은 포항 또 한집은 안강 다음은 경주시 평동 그 다음은 울산 연양 등에 터

를 잡아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 동굴의 임향조이신 매향 권사민공은 경주시 안강 두류에서 태어나서 안강 노당 초강에서 서당을 열어 문도를 길러 내다가 처가가 있는 지금의 경주시 황남동 종리로 왔는데 당시 월성(경주) 이씨와 곡산 한씨 그리고 신안 주씨들이 살았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영천성 전투 팔공산회맹 창녕 화항산성 등지에서 맹활약을 한 경주시 안강 두류에서 태어나서 안강 노당 초강에서 서당을 열어 문도를 길러 내다가 처가가 있는 지금의 경주시 황남동 종리로 왔는데 그때 곡산 한씨도 함께 왔는데 안동 권씨는 잇따라 산 남쪽 아래 자리 잡게 되고 곡산 한씨는 천장봉 아래 터를 잡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경주 김씨들이 살아 왔는데 언제 어디로 떠나간 지 흔적조차 없는데 곳곳에 김씨들 묘는 많이 남아있다. 특히 김의장 전사묘가 있다.

12대조는 외동아신데 생원 진사를 지내시었는데 슬하에 아들 둘이었다. 그리고 아래 대인 나의 10대조께서도 4형제인데 막내아들인 넷째가 부모 봉양하였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를 모신 막내아들 후손들 중에서 초헌관을 했다고

날 농기계 없이는 농사 못 짓는 것과 같았다. 소도 없이 농토도 적고 양친 부모도 모시게 되고 하는데도 형제들은 올 때마다 야단치는 것이었다. 주위에서는 성실 근면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면서 마을 문종일 같은 것도 많이 시키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안 되어 면소제자인 이조리로 이사를 가는데 집안사람과 마을에서는 야단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사가도 그냥 이사 가나 하는데 오직 나만이 이사 간다나 야단들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 일과 문종일 뿐만 아니라 이웃일도 많이 해 주어서인지 매우 아쉬워했다. 그레도 농사는 고향에 나누고 오며가며 짓곤 하였다. 내 이웃에 살던 한집은 내가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이사 가서 얼마 안 가서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병수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틈틈이 막노동도 하면서 4년 정도 돌보았는데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회사에 나가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동안 못다한 일과 공부를 하곤 하였다. 특히 향토사와 지명 방언 전설 문화재 등 여러 분야에서 조사 연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록은 바로 역사다.

기록 없는 역사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한 줄의 기록이라도 있으면 전설 신화 민담 설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 묻히기 마련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해도 기록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 하찮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있으면 역사에 남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록을 매우 중요시해야 한다.

가을 들관

권순채

노오란 울단 위의 각가지 색의 향연

작은 바람에도 붓질을 하며

그림을 그린다

넋물에 물감을 찍어보면

하늘에 고추잠자리가

그림을 그리면

하얀 구름이 점점 번져

곱디고운 그림이 그려지면

고운 비단처럼 펼쳐진

가을 하늘의 구름